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1. 4.(목) 배포즉시 배포 2024. 1. 4.(목)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긴급 안전조치 계획

- 액화석유가스(LPG) 협회,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신속한 안전관리 실태 파악과 긴급 안전조치 협력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월 4일(목) 14:00, 최근 1. 1.(월) 발생한 강원도 평창군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폭발사고의 원인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주재), 한국LPG산업협회,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SK가스, E1, GS칼텍스,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가스안전공사

현재 정부에서 합동 정밀조사가 진행 중이나, 1. 2.(화) 산업부 강경성 2차관의 사고현장 긴급점검 결과 충전소 내 안전수칙 미준수 문제가 확인됨에 따라, 유사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전국 모든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특별점검(1. 3.~2. 29.), △이충전 차량 전수조사(1. 3.~1. 31.), △충전소 종사자 특별교육 및 안전관리자 업무수행실태조사(1. 3.~2. 29.) 등 긴급 안전관리를 1. 3.(수)부터 실시 중이며, 점검결과 관련 규정 위반 시 행정조치도 엄격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특별점검의 후속 조치로 벌크로리 충전소에 대해서는 추가로 불시점검(2. 1.~계속)을 시행하여 현장의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산업부는 즉시 시행 중인 긴급 안전관리계획을 관계 협회, 업계와 공유하고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격한 안전관리의 즉각적인 이행 협조를 당부하였다.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 “민생과 밀접한 서민 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특히 대량의 액화석유가스(LPG)를 보관하는 충전소에서 실제로 안전수칙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공사와 협회가 협력하여 조치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에너지안전과	책임자	과 장	황윤길	(044-203-3980)
	에너지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김예환	(044-203-398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